

■ 법률 칼럼

영주권 신청 시 코로나 백신 접종 서류 제출



이민서비스국(USCIS)은 9월14일자로 질병예방국(CDC) 지침에 따라 이민 절차에 관한 안내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오는 10월1일 이후부터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시에 제출하는 건강검진서(Form I-693)에 이민국 지정병원 의사의 코로나 접종 확인 서명을 반드시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래 이민법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section 212(a)(1)(A)(iii))에 따르면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의 백신은 모두 맞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Admissible). 이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의 목록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사라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 1) 공식적인 백신 접종 레코드
 - 2) 의사가 작성한 백신 접종 서류
 - 3) 의사의 확인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 위의 증거들을 건강검진 시에 이민국 지정병원 의사에게 제출하면 그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확인하고 건강검진 서류에 확인 서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시에 접종을 못하신

경우는 위의 서류를 함께 영주권 신청 시에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1) 접종 연령에 이르지 못한 경우(현재 12세 미만)
- 2) 기저 질환 등 백신을 맞지 못할 건강 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 3) 미국 밖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백신을 그 지역에서 맞을 수 없는 경우
- 4) 종교적, 도덕적 신념으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

그러나 4번의 경우는 601면제라는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4번을 이유로 삼는 경우는 영주권 거절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백신 접종을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는 건강검진서에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 확인에 No가 표시되게 되고 결국 영주권 거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추가서류 제출 요청서의 형태로 백신 접종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6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현팅턴 센트럴 파크 (Huntington Central Park)

가끔 계으름 피우고 싶을 때가 있다. 음식을 차려 먹기 귀찮은 날, 이런 날은 식사를 하고 걸을 수 있는 현팅턴 센트럴 파크(Huntington Central Park)가 제격이다.

현팅턴 센트럴 파크에 있는 Park Bench Cafe는 아침과 점심 식사만 서브하는 식당이다. 어떻게 공원 안에 이런 식당을 차릴 수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공원과 잘 어울려 공원의 부대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식당은 애완견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테리고 와 식사를 한다. 그들끼리 고리를 치고 으르렁거리기도 한다.

식사를 하고 호수에서 노니는 오리 폐를 바라보며 걷는다. 지난주 일요일(9/12)에 가보니 관리가 잘 안 되어 녹조 현상이 아주 심한 편이라 호수 자체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웠다. 오리도 다람쥐도 사람들에 익숙해져 있어 인기척이 나도 피하려 하지 않는다. 어떤 다람쥐는 사람에게 달려오기도 하고 포즈를 취해주기도 한다. 가볍게 몸을 풀 수 있도록 운동 시설을 군데군데 갖추어 놓았다. 걷다가 잠시 쉬면서 시설을 이용

해도 좋다. 공연이 가능한 계단식 야외 음악당도 갖추어 있다.

특히 공원 안에 따로 울타리를 쳐놓고 Secret Garden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은 곳이 있다. 서울의 비원을 기대했다가는 실망이 클 수도 있다. 아기 자기하게 꾸며 놓았지만 비밀스러운 것이라고는 없는 그저 작은 정원에 불과하다. 한 바퀴 돌고 나와 걷던 방향으로 또 걷는다. 한 바퀴 돌고나면 직성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 바퀴를 더 돌아도 좋다. 그러나 같은 곳을 계속 돌기 싫다면 현팅턴 비치로 간다. 자동차로 10여 분만 가면 바다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핑의 명소, 현팅턴 비치가 가까이 있으니 소화도 시킬 겸 바닷가를 걸어도 좋고 피어 끝까지 걸어가 태평양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잔 해도 좋다.

■ Park Bench Cafe
(714) 842-0775
17732 Goldenwest St.
Huntington Beach, CA 92647

■ Huntington Central Park
(714) 536-5486
18002 Goldentwest St.
Huntington Beach, CA 92648



▲ 현팅턴 센트럴 파크에 있는 Park Bench Cafe, 사진=타운뉴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Home Remodeling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넷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